

최종편집 : 2021-10-15 21:57 (금)

로그인 회원가입 BBS불교방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세검색



전체 경제 정치 사회 문화·스포츠 불교 국제 전국 | BBS 인터뷰 BBS 칼럼 BBS 취재수첩 BBS PLAZA 인사/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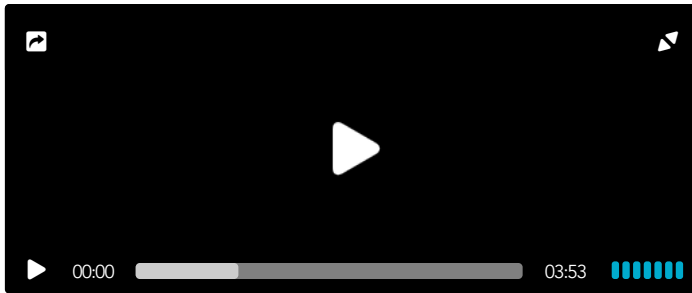
홈 > 불교

'지리산 굽이굽이'...108 천리순례 고갯길 만행

박준상 기자 | 입력 2021.10.04 16:12 | 수정 2021.10.05 06:28 | 댓글 0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천리순례 '화엄사-천은사-시암재'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 사회 각계 인사들, 휴일 이용해 동참



영상이 뜨지 않는 경우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 발원의 염원을 담은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천리순례가 해발 천 미터 지리산 고갯길을 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잠시나마 순례에 함께 하려는 전국 재가불자와 각계 인사들의 환희심 가득한 동참이 이어져 만행결사 여정에 힘을 북돋았습니다.

천리순례단을 동행 취재하고 있는 박준상 기자가 전합니다.

최신뉴스

- 불교 | 백양사, 독거노인세대에 연인 도시락 680개 기탁
- 경제 | 아파트값 뛰자 오피스텔 가격도 초강세...매매·전...
- 정치 | 문 대통령, 日 기사다 총리와 첫 통화..."강제징용 ...
- 사회 |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전 5개월 성남시 고문번호...
- 사회 | 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시청 11시간 압수수색

포토뉴스



인기뉴스

- 1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마지막 거리두기...
- 2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나온 '광화대군'
- 3 사적모임 인원 완화...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
- 4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부울경 토론회 + 이준석의 특
- 5 [코로나19]부산 18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10명, 다중이용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천리순례단

기자

일렬로 길게 늘어선 행렬의 저벅이는 발걸음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웁니다.

순례길의 고단함을 덜어준 화엄사 화엄문화축제의 감동을 뒤로 하고, 스님들이 가사를 수한 건 새벽 3시.

[덕조스님 / 제주 약천사 주지]

“우리가 어려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고통이잖아요.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면 고행이거든요. 그 고행을 자기것으로 만들어 낼 때, 녹여낼 때 우리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과 오늘 함께 하지만, 어쩌면 개별적으로는 하나의 수행이지 않을까.”

순례단은 화엄사 말사인 천은사 극락보전을 찾아 참배했고,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은 경내 포대화상 앞에서 천리순례의 원만성취를 발원하는 소원지를 써서 직접 매달았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17박 18일 순례길의 최대 난코스, 해발 1,000미터의 지리산 시암재 숙영지로 향하는 길.

발바닥은 이미 반창고 투성이가 됐지만 죽음을 불사했던 역대 조사들의 결사 정신을 되뇌이며 굽이굽이 꺾어진 오르막을 딛고 오르며 어느새 지척이 발아래 놓입니다.

특히 이번 순례길엔 일상을 잠시 뒤로한 채, 조금이라도 함께 걷겠다며 한달음에 찾아온 전국 재가불자와 각계 인사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17박18일 고박 걷는 일정을 전부 함께하진 못하지만, 휴일을 이용해 함께 건너나 순례자들이 힘을 내는데 크고 작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의원]

“맑은 공기에 넉넉한 가을 들판을 보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너무 좋습니다. 오늘 국감 때문에 오전만 하고... 저는 평소에도 매일 많이 걷습니다. 와보고 싶은 코스도 많고 또 삼보사찰을 거치고 해서 마음을 냈는데...”

[김재연 / 진보당 상임대표]

6 [코로나19] 18일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8명, 비수



7 울산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유지.. 식당·카페 밤 12시까지 운영.. 가을 행락철 특별방역 추진

8 [속보]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필



BBS칼럼

전경윤의 '세상살이'

전영신의 '사산'

신두식의 '공감노트'

배재수의 '크로키'

이현구의 '스윗 스팟'

선임기자 칼럼 NEW

월 1만원 이상, 방송포교후원 공덕주 모임

만공회

가입문의 1855-3000

ARS 후원 060-800-8000
(한 통화 5천원)

“짧은 시간이라도 같이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회주스님께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주인되는 그런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같이 나눈다고 하셨는데 그 뜻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윤식 / 중앙신도회장]

“(지난해 순례에서) 불교 중흥을 위해서는 사부대중 함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년간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일년간 했던 걸 반성도 해보고 포교를 통한 불교 중흥에 대해서 큰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108 천리순례단이 한국불교 중흥의 발원으로 걸어온 길은 어느덧 100Km에 달했습니다.

해발 천 미터, 강풍과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순례단의 발걸음은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암재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남창오 기자



천은사 수홍문 건너는 천리순례단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과 순례자들이 천은사 극락보전 앞에서 참배를 올리는 모습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저작권 © BBS NEWS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추천
0



반대
0

당신만안본뉴스

이낙연 전 대표 "결선투표 필요, 대장동 의혹에 대한 ...
'큰스님의 아멘' 각계 반향... "벽을 허무는 큰 울림"
[교육기획] "선생님! 고맙습니다"...경기 화성 남양고
[코로나19] 서울 노원구 병원 관련 28명 확진...병원...
국민의힘, 오늘 광주에서 첫 TV토론..5,18묘역 참배도
문 대통령 "'청정수소 선도국가' 강력 추진"
윤건영 "이준석 대표, 여당(이재명-이낙연) 이간질 그...

이낙연 전 대표 "결선투표 필요, 대장동 의
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지켜봐야 한다는

기사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주요기사



백양사, 독거노인세대엔 연
입 도시락 680개 기탁



아파트값 뚝자 오피스텔 가
격도 초강세...매매·전세



문 대통령, 日 기사다 총리
와 첫 통화..."강제징용 문제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전 5
개월 성남시 고문번호사 활



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성
남시청 11시간 압수수색



"문 대통령·기사다 일본 총
리, 첫 통화"



[매체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BBS불교방송(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 대표전화 : 02-705-5114 | 팩스 : 02-705-5229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재수
제호 : BBS 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1259 | 등록일 : 2010-06-03 | 발행일 : 2001-09-01
발행인 : 박형수(종하) | 편집인 : 전경윤

BBS NEWS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BBS 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bsi.co.kr

POWERED BY **NC**